

“종교” 교재 개발의 과제와 전망*

김 귀 성

원광대학교

〈요 약〉

이 글은 종교계 중등학교 및 교사양성 프로그램을 위해 개발된 교재, 보다 집혀서 말하면 교과서 개발의 과제와 전망을 설정해 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02년 이후 현행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중등학교 종교교과서가 종교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되게 개발되는지, 현행 교육과정체계(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에 충실한지 등을 조명해보면, 현행 종교교과서는 본래 설립 취지보다는 종교선교나 교화에 목적을 두고 개발된 흔적을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종전에 비해 교육과정 체제에 따르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이나 여전히 특정 종교의 관점에서 호교론 적이고 여타 종교에 대한 포용이나 균형 잡힌 관점보다는 배타성을 극복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밖에 학습자의 관심이나 흥미를 고려한 흔적도 부분적으로 발견되지만, 교과서 개발이 학습자를 비롯하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정도서 절차과정을 거칠 필요도 발견된다. 이상의 과제를 근거로 몇 가지 발전적 전망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종교 교재개발을 위한 범종단 교과서 개발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장차 교과서 개발의 자유발행제에 부합되고 종교 간 상호 이해와 균형 잡힌 보다 객관적인 내용이 담겨짐으로써 명실상부한 종교교과서로 거듭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끝으로 종교교재 개발에 보다 근원적인 개선을 위한 한 방안으로 교사 교육프로그램에 활용되는 기본교재인 종교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관련 교재부터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객관적인 안목에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 주제어 : 종교교육, 종교교재, 종교교과서, 종교교육과정

* 이 논문은 2006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I. 문제의 제기

일반적으로 공교육에서 활용되는 교재란 교수-학습에 활용되는 재료를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교재는 반드시 교과서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교수-학습에 도움이 되는 보다 다양한 재료가 다 동원될 수 있다. 학교에서 종교교육의 교수-학습활동에 활용되는 재료도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그 범주를 좁혀서 중등학교에서 교수-학습활동에 활용되는 자료와 교원양성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교재인 교과서에 국한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적어도 이들 교재만큼은 표준화된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교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교과서를 들 수 있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를 말한다(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도서 수를 보면 국정도서는 모두 721종(721책)이며, 검정도서는 187종 1,575책이다. 인정도서는 2003. 3. 1일 현재 1,110책이 개발되어 있으나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개발된 인정도서들 중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우리들은 1학년', 시 도별로 배우는 '사회과탐구' 등 783책이 개발되어 있고, 중학교는 종교 등 45책, 고등학교는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등 교양교과와 전문교과의 도서 282책이 개발되어 있다. 종교 교과서도 지난 2002년에 대부분 현행 교육과정체제에 따라 인정도서로 개발된 바 있다²⁾. 그러나 이런 교재개발을 전후로 한 분석과 평가는 부분적으로 이뤄진 적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는 실정이다³⁾. 더욱이 우리나라는 교과서 제도는 국검제, 일종, 인정, 자유발행제 중에서 맨 마지막 단계로 이동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종교교과서 개발도 이를 수용할 조건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교과서 개발을 거시적으로 들여다보면 국가 사회, 종단, 관련 인접교과,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이 관련되고 미시적으로는 필진을 비롯하여 교과서 개발의 절차과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를 개발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은 교육과정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육과정의 큰 틀에 대하여 일정한 공유 기반이 선행되어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교육과정의 큰 틀을 설정하는데 난제는 물론 종교교육에 대한 규정일 것이다. 물론 종교교육의 개념적 이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어떻게 정의하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종교교육은 교육과 다른 형태의 그 무엇으로 대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비록 현행 '종교'교과가 고등학교의 경우 교양 선택과목으

-
- 2) 김귀성, <제7차 교육과정과 종교교과서 개발>, 한국종교학회, 《종교연구》 제28집, 2002, 128-129쪽,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인정도서현황('05.2.28현재/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소개됨)
 - 3) 이기성, 종교교육과정에 관한 비판적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년, 위 논문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개편된 한국기독교학교 연맹 교과서를 중점 분석한 논문임. 대학의 교양교재에 대한 분석과 평가로는 김용표, 불교교양교재 불교와 인간에 대한 재검토/강혜원, 불교교양교재 및 교육내용에 대한 분석과 평가 등을 들 수 있다(<http://home.dgu.ac.kr>/참조).

로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문제⁴⁾중의 하나가 바로 교육내용의 모호성을 든다. 그 핵심은 종교교육의 성격을 '건전한 종교관의 확립'에 두고 있으면서 목적에서는 '건전한 종교관 정립, 성숙한 신앙심 확충, 종교인으로서 바람직한 생활태도를 기르는데 두고 있다'고 함으로서 이들 간에 모호하게 중첩되어 있는데 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학교교육의 주된 학생 및 교사용 도서를 말한다. 교과서는 이 교과서를 매개로 학생을 지도하며 학생들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학습재로 삼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선정하고 배열한 내용에 따라 지식, 경험의 체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학생들의 발달단계나 학습의 소지 또는 바탕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학습의 기본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교재로서의 성격을 갖추어야 한다.⁵⁾ 그러나 현행 교과서가 안고 있는 문제로는 교육과정과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종교에 대해 서술하는 부분에서는 아직도 호교론 적이고 배타적인 관점을 노출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종교교과서 개발이 가능한 종교교육과정에 부합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종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⁶⁾

종교교육에서 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재삼 논의할 필요도 없이 좁게는 교수-학습활동에 넓게는 종교문화, 종교에 대한 이해를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종교 교재개발에 문제를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 모색을 하는가? 그것은 교과서 개발을 통하여 종교교육의 모형정립 뿐만 아니라 나아가 종교교육의 현장에서 접근 가능성을 제고하는 여지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⁷⁾ 사실 반드시 종교 교재에만 국한되는 일은 아니지만 교재개발은 집필진을 비롯하여 감수, 출판사, 학생, 학부모, 법률 및 제도적 장치, 전문가, 종단, 교육과정 체제 등 많은 요인이 관여됨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종교교과서 개발은 인정도서로서 이런 저런 한계를 안고 있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⁸⁾. 뿐만 아니라 현행 초·중등학교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인접 교과서(도덕, 국사, 세계사, 국어 등)내용 중 종교에 관한 내용이 종교교육과는 어떤 관련을 맺고 보다 객관적으로 일관되게 다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한편 교육부는 2010년부터 최근 교과서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과서 질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교의 모든 교과서가 검정교과서로 바뀐다고 발표한 바 있다⁹⁾. 중고교의 종교교과교육을 위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종교교육을 어떤

4) 정진홍, <제7차 교육과정과 종교교육>,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제13권, 2001, 5쪽에서 고교 종교교과 설치의 근원적인 문제로 법률적 모호성, 종교교육 내용의 모호성,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호성을 들고 있음.

5) 서울대 교육연구소, 《교육학용어사전》, 하우, 1994, 81쪽.

6)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15 교양)》, 1997, 128쪽.

7) 김귀성, 앞의 글, 128-129쪽.

8) 현행 인정도서 관련 제 규정(교과서 검정에 관한 규정, 인정도서에 관한 규정 등)이 있지만 이를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본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종교일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학계, 교육현장,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공동심의기구가 필요함.

9) <초중고 국정교과서 없앤다. 《동아일보》 2006. 1.31(화)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편 중등학교 ‘종교’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 종교교육 관련 교재도 주목의 대상이 된다. 교사양성과정에서 어떤 교재를 활용하여 어떤 교사를 양성하는가에 따라 중등학교 교육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등학교 교재 개발의 난점의 원인 중의 하나는 원하든 원치 않든 교사교육 차원에서부터 비롯된 점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예비교사 교육에서부터 건전한 종교관의 확립이라는 종교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이뤄진다면 중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의 어려움이 경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제도에서 종교 교사양성은 교육과, 비사계, 교육대학원 등에서 가능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교과내용(기본이수과목 포함)과 교과교육영역, 교직과목(교육실습 등)이 쟁점이 된다. 그런데 어떤 과정에서는 “종교”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과교육 영역 가운데 교직과목으로써 ‘종교교과교육론, 종교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이수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영역을 누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교육하는지는 확인하기 용이하지 않다. 설사 확인된다 할지라도 현재 각 대학에서 종교교과교육 영역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요원이 얼마나 있는지 짐작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다. 더구나 이들에 의해 가르쳐지고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교원양성과정에서 교재 즉, 이런 교과교육 영역의 교재에 대한 관심을 결코 종교 교과서 개발과 무관하지 않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전제로 본고에서는 현행 중등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종교”교과서 및 종교교사교육과 관련하여 개발된 교재의 과제와 향후 전망을 설정해보기로 한다.

II. 중등학교 종교교재 개발의 과제

1. 교육과정의 준거에 따라 교재 개발이 되고 있는가?

첫째, 현행 중등학교 종교교과서 개발이 종교교과가 본래 지향하는 목적에 적합하게 개발되고 있는가와 관련된 질문이다. 좁게는 종교교과가 지향하는 목적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이 있는 만큼 현행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교육목적이 실제로 현장에서 일관되게 구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종교교과는 고등학교 선택 교양 선택 과목으로 운영되게 되어 있지만 중학교의 경우는 교과교육활동 외에 학교장 재량활동이나 특기적성교육, 특별활동 등 교과 외 활동에서 수용될 가능성은 있다. 이런 현행 교육과정 자체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¹⁰⁾. 설사 교양과목의 하나로 설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본래 취지대로 적합한

10) 현행 7차 교육과정과 종교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종교학적 측면에서 정진홍(2001:37-38), 기독교 학교에서 종교교육의 측면에서 손원영(2001:128-129), 중등 불교교육의 입장에서 고진호(2001: 78-80)가톨릭학교의 입장에서 송기선(2001:96-99), 원불교 종교교육입장에서 양은용(2001:170-171) 등의 글에 잘 나타나 있음. 현행 교육과정에 비취 종교교과를 교양과목의 하나로 볼 것인가, 미시적으로는 종교문화교육, 종단교육 등 어떤 입장을 표방하느냐에 따라 교과서 개발도 달리할 가능성이

교재개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어떤 교과도 그렇듯이 적어도 “종교” 교과 교육도 정규 교과교육활동을 비롯하여 공교육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되려면 본래 교육의 목적에 충실할 필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다면 현재 각 종단에서 개발된 교과서가 그런 목적에 적합한지를 묻게 된다. 우선, 종교교육이 교양교육의 성격과 교양교재가 갖추어야 할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적어도 교양 교육과정의 기본방향¹¹⁾에 부합되는지, 뿐만 아니라 종교과목의 기본목표(건전한 종교관의 정립,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인생문제중심의 접근, 다른 종교를 포용할 수 있는 내용)에 부합되게 개발되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준거에 비춰보면 현행 교과서 개발은 교양과목의 성격에 비해 해당 종교의 교리나 역사위주의 진술이 지배적이고, 실제수업 여건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분량(중3권, 고3권 등), 해당 종교 신자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배려, 주제중심의 교재개발에 적합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물론 현행 교육과정의 일부 내용에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과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해’ 등은 종교의 다원현상과 환경- 생태적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을 주제화한 것으로 주목할만한 변화이다¹²⁾. 그 밖에 판형의 변화, 자체 종교에 대한 진술내용의 감소 등이 발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교과 교육의 목적에 혼란을 야기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종교문화교육과 개별 종단교육이 공존하는데서 야기되는 문제로 종교에 대한 학습과 신도양성교육의 혼재, 학교의 종교교육과 개별 종교의 종교교육의 경계가 불분명해져 학교가 사원이나 성당 교회가 되는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특정 종단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하에서 이런 종교교육의 제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의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¹³⁾. 이에 대해 교육부의 입장은 기존의 방침에 비해 큰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종교교육에 관한 학교재량권이 확대되었다고 주장한다.¹⁴⁾ 종교문화교육과 신앙적

높음.

11)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1997, 6-8쪽, 즉, 인간의 정서와 가치에 관한 인간교육에 역점을 두었는지, 학문체계보다는 개인 생활 및 성장발달과 사회생활에 유용한 실용적 내용을 강조했는지,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주제, 쟁점을 제시하여 사색과 논의로 이끌 어 참여를 유도해 수업을 활성화하고 학자들의 다양한 관점을 보충해 주어 넓은 각도에서 사물을 보고 유익한 학습이 되도록 했는지, 교양과 과목별 내용을 총망라한 포괄적인 교육과정이 아니라 유의미성을 고려하여 적은 양의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도록 했는지 돌아 볼 필요가 있다.

12) 정진홍, 앞의 글, 33쪽.

13) 손원영, 앞의 글(2001:130)에서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기독교학교의 불만은 고교의 경우 종교과목을 복수선택과목으로 규정한 점, 중학교 성경교과를 재량활동으로 대신한 점, 성격교과 운영시 학부모 대표와 협의할 것 등으로 제기함. 김철주·고병철, 〈제7차 교육과정개편에 따른 종교교육론의 새로운 방향〉,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17권, 2003, 115-117쪽.

14) <중·고등학교 종교과목 개설에 관한 사항>, 《교육소식》 제 26호(200.4.6)에 의하면 중학교는 교과재량활동의 기타 선택과목으로 연간 34-102시간 이수가능하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1학년은 교과

종교교육 패턴에 대해서도 견해차는 심하다. 일각에서는 이 양자가 상호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보편과 특수,의 내적 연관성, 종교학적 종교교육과 신앙 교육적 종교교육의 병행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한다.¹⁵⁾ 이런 종교교육의 성격규정의 문제가 미해결된 채 남아 있는 원인에 대해 종교교육이라는 학문에 근대적 학문체계내에서 자기 영역을 전적으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¹⁶⁾는 지적도 있다. 이는 종교교육이 건전한 시민양성을 지향하는 교양과목으로 자리매김 하려면 특정 종파나 일반 종교교육의 중첩성에서 벗어나 근대적 학문체계에 배치된 다른 교과목들처럼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에 수용 가능한 일반적인 종교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얻으려면 종교교육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때 가능할 것이다¹⁷⁾.

현재 이미 개발된 각 종단의 중등학교 종교 교과서를 보면 일부 변경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종교문화교육과 종단교육을 수용한 채 후자에 보다 치중한 것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¹⁸⁾. 특히 타종교 서술에서는 여전히 호교론 적이고 배타적인 관점을 극복했다고 보기 어렵다¹⁹⁾. 따라서 '종교' 교과서는 외형상 현행 교육과정 체제를 따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엄밀히 말하면 교육과정 체제를 자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편이다.

둘째, 교과서 개발과 관련해서 보면 현재 각 종단에서 개발된 교과서는 현행 교육과정 체제와 얼마나 부합되어 개발된 것인가? 물론 현행 교육과정 자체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전제는 아니다. 앞으로 개정을 요하는 과제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적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교과서 개발이 과연 교육과정에 순응하는 것이 정당하냐의 문제는 별도의 논의를 요하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은 과연 우리나라의 중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이 현행 교육과정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는 중요한 준거가 된다. 설사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교과서 개발에 까지 연장해서 영향을 주

재량활동 중 선택과목에 배정할 수 있는 4·6단위를 종교과목으로 개설 가능하고, 2·3학년은 교양 선택과목에 배당된 136단위 중학교가 28단위 이상을 지정 가능하다고 함.

15) 고진호, 앞의 글(2001:79), 손원영, 앞의 글(2001: 127-129).

16) 김철주·고병철, <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종교교육의 쟁점과 새로운 방향>, 《종교교육학연구》 제17권, 2003, 123쪽.

17) 학교에서 종교교육이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성립되려면 적어도 종교와 교육의 성숙에 따른 차이로 보기 보다는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결과가 교육적이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Peters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이란 바람직한 정신상태를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실현하는 일, 지식과 이해 모종의 생기 있는 지적 안목의 형성, 학습자에 대한 배려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R. S. Peters, *The concept of education*, R. K. P, 1967, PP.1-22/Christopher Winch and J. Gingell, *Key concepts in the philosophy of education*, R. K. P, 1999, PP. 205-208/A. Flew, "Indoctrination and religion", *Concepts of Indoctrination*, R. K. P, 1972, PP.106-114.

18) 이기성, 앞의 글(2002:71)에서 한국기독교학교연맹 교과서(고등학교)를 분석한 결과 정부 교육과정이 종교학을 근거로 하고 있다면 기독교학교의 현장에 교육과정은 신학을 그거로 하고 있다고 지적함.

19) 위의 글, 141쪽.

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오히려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할 뿐이다. 일견 종전에 비해 현재 각 종단에서 개발된 교과서는 새로운 변화 추세를 수용하여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과 같이 대체로 해당 종단에서 개발된 교과서(고등학교용)의 전체 분량에서 해당 종교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40%-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는 종교 교과서가 적어도 목차만이라도 현행 교육과정 체제와 연계시키려고 노력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것이 어디까지나 해당 종교의 선교목적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할 따름이다. 내용을 일일이 다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교육과정에 명시된 종교교육의 목적과 관련시켜서 보면 쉽게 발견된다.²⁰⁾

한국기독교학교연맹에서 개발된 최근의 교과서에 대한 한 연구²¹⁾에 의하면, 교육내용의 선정은 다섯 가지 기준, 타당성, 유의미성, 유용성, 학습가능성, 외적 내적 관련성, 참여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 목적에서 종교학적 접근과 신앙적 접근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 전체적인 내용이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학습자의 삶과 연계된 내용들이기 보다는 지적 영역을 요구하는 내용들이었고, 종교일반에 대한 상당한 지적 관심을 충족될 수 있지만 종교에 대한 과다한 지식을 강요함으로써 오히려 종교에 대한 혼란스런 당혹감을 가지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설사 종교일반에 대한 진술에서도 특정 종교입장에서 접근하다 보니 일관성·상호 관련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다. 대체로 종교 교과서 개발 과정에 종전에 비해 현장교사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중심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집필 교사가 종교 일반을 비롯하여 특정 종교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면서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더구나 우리가 그런 교사를 양성하는데 얼마나 노력했는가 라는 원천적인 질문으로부터 재교육에 이르기 까지 자율적인 노력에만 의존해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교수-학습모형을 비롯한 학습평가는 매우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소지는 없는가? 물론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교수-학습과정에 다양한 접근 방법과 평가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입시를 비롯하여 학교의 제반여건이 이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 밖에 현행 교과서에는 이 단원의 공부를 위하여, 연구 문제 등을 담아 학생들의 학습 동기 및 심화학습을 유도하고 있고 일부 교과서는 학생들의 삶에 관심사인 인터넷, 성, 약물 중독, 외모, 죽음, 안락사, 임신중절, 인간복제, 공동선, 정의로운 환경, 알코올, 흡연 등의 문

20) 예를 들면, 종교(불교) 고등학교 교과서 대장 첫머리에 이 단원의 공부를 위해서는 단원에 대한 소개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IV.--- “참된 종교인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부가 펴낸 종교(기독교)고교 교과서 머리말에 “종교과목을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 학교의 설립 목적이요, 건학이념이므로 성경과목은 필수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한국기독교 학교연맹에서 펴낸 종교(기독교) 고교교과서 머리말에도 “이 교과서를 통하여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됨과 동시에 일상생활과 성경의 교훈과의 관계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음.

21) 이기성, 앞의 글(2002:105).

〈표 1〉 “종교”(고등학교) 교과서 목차 대비

교육과정	교과서	종교(불교/1권) (2002-042)	종교(가톨릭/1권) (2002-041)	종교(기독교)	
				예수교장로회(3권) (2002-38~40)	기독교학교연맹(3권) (2002-35~37)
인간과 종교	인간의 삶과 종교	나를 찾아서 (인터넷, 성, 약물 중독, 외모와 나)	인간과 종교(상)	인간과 종교(상)	인간과 종교(상)
종교경험의 이해			종교경험의 이해(상)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	세계의 종교	이웃종교들(불교, 유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한국종교)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상)		
세계종교와 문화	세계 종교의 사상과 특성		세계종교와 문화(중)	세계종교의 전통(상)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이해	인간과 자연 그리고 종교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이해(하)		
한국종교와 문화	우리나라의 종교와 문화		한국종교와 문화(중) 한국인의 삶과 종교 (중)	한국인의 종교 한국에 전래된 종교	
종교공동체	현대 사회와 종교의 역할		종교공동체 종교인의 삶과 실천 (하)	현대사회와 종교(하)	
특정종교의 전통과 사상	불교의 출발 깨달음의 세계 대승의 진리 불교의 윤리 한국의 불교 불교와 예술 불교의 신행 불교와 새로운 문화의 창조 (135쪽/49%)	- 우리를 사랑 하시는 분은 - 우리의 선택 - 행복을 찾아서 (105쪽/57%)	교회와 종말(상) 기독교와 성격(상) 계약과 예언(중) 교회와 선교(중) 하나님과 인간(하) 그리스도와 성령(하) (총 3권/193/40%)	기독교의 경전(상)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상)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중) 그리스도의 가르침(중) 교회의 역사(하) 기독교인의 생활(화) 기독교인의 미래(하) (총3권/207쪽/53%)	
기타	- 이단원의 공부를 위하여 - 연구문제 - 찾아보기	- 활동과 질문 - 찾아보기	- 이단원의 공부를 위하여 - 연구 및 실천과제	- 이단원의 공부를 위하여 - 연구문제	
계	총 278쪽	총 183쪽	총 486쪽	총 392쪽	

제에 접근하고²²⁾는 있으나 대부분의 교과서는 특정 종교의 교리, 역사위주로 이뤄져 있어 과연 학생들에게 어떤 교수·학습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할지, 나아가 평가모형의 정립 등이 남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종교교육을 인성교육, 도덕교육과 관련시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전제로 관련 교과와의 관련 등 다각적인 연구가 요청되는 과제라고 여겨진다.²³⁾

셋째, 현행 교육과정에서 이른바 학교장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등에서 종교교육이 접근될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현행 교과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의문을 던져본다. 형식적인 교육과정이 아닌 잠재적 교육과정에 적용은 매우 광범위하여 교과서에만 의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지만 현행 교육과정 틀 속에서 종교교과서가 개발되어 실제 활용을 전제로 한다면 비단 교과교육 영역에만 국한하기 보다는 이런 부분을 포섭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교재 개발을 필요로 할 것이다.

끝으로 종교교과서 개발이 현행 교육과정 틀 내에서 이미 개발된 관련 교과서(예: 국사, 국어, 도덕, 세계사 등)와 유기적인 연계를 가지고 일관되게 개발되는가를 반문해본다. 물론 교과 영역에 따라 해당 교과서는 그 자체의 기준에 따라 개발되는 것이지만 인접교과에서도 종교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소개되고 있고 교수·학습활동에 포함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교사와 학습자 나아가 교육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런 점에서 종교 교과서가 인접교과서의 종교 관련 내용의 안내나 심화학습에 좋은 잣대구실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인접 교과목의 종교관련 내용은 모든 학교교육에 수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종교문화의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종교’ 교과서 개발이 학습자, 제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발되고 있는가?

교과서 개발이 단순히 저자의 자유로운 집필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종교 교과서 개발은 학습자를 비롯하여 학교의 교사, 수업여건, 다종교상황 등 학교 안팎의 제반 교육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학습자의 요구를 실제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요구사정(need assessment)²⁴⁾은 자료개발의 단계로 현재 사용되는 자료가 본래의 목적에 일치하는지, 학습자의 발달수준에 적합한지, 자료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알아보기 위해 학습자와 교사가 그 자료를 해석해보고 거시적으로는 교단, 학부모, 교사, 성직자 등으로 구성된 “종교교육위원회(가칭)”에서 최종

22) 가톨릭에서 개발된 중, 고 ‘종교’교과서의 내용에는 최근 학생들의 이런 주제들의 내용을 담고 있음.

23) 김종서, <학교도덕교육에 영향을 주는 종교적 변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 14-6, 1992, 20-27쪽, 손원영(2001:134)은 도덕교육 및 인성 교육적 접근을 강조함.

24) 강희천, 《기독교교육의 비판적 성찰》, 대한기독교서회, 1999, 82-84쪽.

평가해보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종교교과서는 교과서의 양과 내용이 과연 학습자와 제반 교육 여건에 부합되게 개발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나치게 많은 분량, 왜 이런 교재를 개발한 것인가를 의문케 하는 과도한 특정 종교에 관한 내용, 한국의 다종교상황속에서 비종교 내지는 타종교신앙에 대한 배려를 어느 정도 한 것인지,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한 교과서 개발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과연 이런 내용의 교과서로 실제 학교여건에서 교수-학습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²⁵⁾. 물론 그 중에는 일부 조단에서 개발된 교과서가 학습자 발달 수준이나 관심사에 접근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과서는 개발하는 입장에서 있을 뿐 교육 수요자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지 못한 편이다.

물론 현재 교과서 개발에는 교사들이 일부 참여하고 있고 대학의 종교학과 교수들이 감수 등 참여의 흔적이 확인되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나 명목상 참여에 불과할 정도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교과서 개발에 변화를 주도하는 정후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교과서 개발이 교사중심 내지는 종단중심의 틀을 벗지 못한데 있다. 제아무리 훌륭한 교과서가 개발되었다 할지라도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렵고 더구나 학습자에게 접근이 어려운 교과서는 사실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학교 현장에서 수많은 교과 영역 가운데 하나의 교과로서 자리매김하려면 그저 당위적인 필요성 못지않게 왜 실제 교수-학습이 이뤄져야 하는가에 대한 자구적인 정당화의 노력이 요구된다. 어느 교과영역도 마찬가지로 종교교과도 교과교육으로 자리하려면 교과교육에 대한 구성원의 합의, 교과교육전문가 양성 재교육, 학교교육에서 수용, 제도적 법적 보호장치, 등 거쳐야 할 부분이 실로 많기 때문이다.

3. 교과서 개발이 관련된 절차과정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학교나 지역교육청이 인정도서를 개발하여 활용할 경우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7634호)과 각 시도교육청이 규정한 ‘인정도서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교 교과서 개발도 인정도서로 개발되고 있는 점에서 그런 절차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지난 2002년 상반기에 각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인정도서로 개발된 교과서를 보면 모두 법적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물론 인정도서 신청시 저작권 저축을 비롯하여 각 학교에서 학교 운영위원회 등 관련 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25) 안미연, 중등학교에서 종교교육 실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 59-60쪽/이상훈 (1998)의 연구에서도 교사들의 종교교과서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7.4%) 수업시간에 교과서의존도도 낮은 것(14.8%)으로 나타남/강돈구 외, 종교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38쪽에서도 종교교과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남(21.34%).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위원 선정을 비롯한 심의기준 등 제반 절차과정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라북도의 경우, 위원수는 5-11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심의기준에 1차기준과 2차기준이 구분되어 있고 1차기준은 필수기준(교육목적 위배여부(2항목), 국책 국시위배 여부(2항목), 교과내용상 적합성 여부(3항목), 집필상의 불공정 여부(3항목) 등과 교과기준(내용 선정과 조직, 내용진술, 편찬체계 등 20항목) 등 총 30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차심의를 1차 심의결과의 수정 보완 요구사항의 이행여부, 표현, 표기 편찬체제 등의 적합성 여부 심의 및 기타 추가 수정사항 작성 등으로 되어 있다.

이런 절차과정을 거쳐서 교과서가 인정도서로써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종교 교과서 개발은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남기고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봄으로써 보다 발전된 교과서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첫째, 교과서 개발의 절차과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가를 반문해본다. 물론 적법 절차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교과서 내용에 대해 보다 공정하고 적합한 교과서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집필에서부터 발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공개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개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종교(기독교)교과서 가운데 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기독교 입장에서 진술하는 것 보다는 해당 분야 전공자가 진술하도록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심의 절차도 모두 특정 종교에 배경을 둔 인사로 구성하는 것 보다는 관련 내용에 따라 적합한 인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설사 적법하게 절차과정은 거쳤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남는 문제는 특정 종교에 대해 호교론적 입장에서부터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둘째, 종교 교과서 개발과 관련하여 정부나 또는 공적 임무를 부여받은 기구가 보다 공정하면서도 대표성을 지닌 위원회를 통하여 심의 기준 절차과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행 규정이 어느 정도 이런 조건을 충족하고는 있지만 지나치리만큼 특정 종단위주로 흐르는 경향을 부인하기 어렵다. 최근 “종교” 교과서 개발과 관련된 제 규정 및 시행 등을 지켜 보면서 적어도 교과서로서 공유되어야 할 보편성의 준거가 무엇인가를 반문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이 교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은 종단마다 구구각색이다. 만일 이것을 특수성으로 인정해야 한다면 어떤 근거에서 왜 공유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그래서 범종단 종교교과서 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 집필의 원칙, 구성내용, 분량, 심의 기준, 절차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 다음 진행한다면 그 간극을 보다 좁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선진국에서처럼 심사위원에 학부모, 학생 등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시행하는 것은 고려해 볼직하다고 판단된다.

4. 종교교사 양성 과정에 적합한 종교교육 관련 교재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가?

2005학년도 현재 교육인적 자원부의 통계에 따르면 사대 교직과정 이수자 현황은 사범대학 재학생이 42,984명, 교육과 재학생이 12,734명, 교직과정 이수자가 67,647명 총계 123,365

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교육대학원의 종교교육 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학부와 관련 전공자에게는 종교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물론 “종교” 교사양성은 ○○교육과라고 명칭된 학과와 비사범계 학과 즉, 종교학과에서 교직과목 이수와 기본이수 과목을 포함한 교사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정원의 10%에 한해 교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현행 제도 아래 종교교사 양성은 교육과, 비사범계 그리고 교육대학원 등 세 곳에서 양성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어느 정도의 예비교사가 이런 자격조건에 충족되어 종교 교사자격을 취득하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떤 과정 절차를 거쳐 교직에 입문하는지 분명하지는 않다.

2006년도 현재 교육대학원의 종교교육 전공 개설 대학은 가톨릭대, 관동대(기독교교육), 동국대, 연세대, 장로회신학대(기독교교육), 충신대(기독교교육, 기독교문화교육) 등 불과 6개 대학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교육부 홈페이지 참조). 이들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는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교사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최소한 “종교교과교육론”, “종교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적어도 위에 명시한 교과교육영역의 과목을 누가 어떤 교재로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는가는 관심의 대상이다. 이들이 장차 종교 과목을 가르치는 현장교사에 임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교과교육을 가르칠 교수요원은 존재하는지, 어떤 목적아래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교수·학습지도가 이뤄지는지 여하에 따라 교사양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런 질문에 외면한다면 전반적으로 대학에서 제공되는 종교교사양성 프로그램이 특정 종교교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에 가깝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는 여타의 교과목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대체로 우리나라 교원양성과 관련하여 전공과목에 기본이수과목은 그 명칭이나 내용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교사양성 프로그램에서 기본이수 과목은 이른바 관련 학과간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²⁶⁾. 이런 대체과목 인정 및 관련학과의 범주 확대를 하다보면 다양성 및 특수성의 인정에다 동일한 교사자격인증에도 불구하고 실제 양성과정이 상이함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자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부가 각 종단이 요구하는 교사양성을 수용함으로써 종교교육이 예비교사 양성과정에서부터 현 중등학교 교육과정 체제와의 관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종교 교사양성과정이 이처럼 다양화되고 일관성이 없는 상황에서 종교교과서 개발을 비롯한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교과서 개발에 앞서 그런 교과서를 개발하는 보다 원천적인 교사양성을 합목적적으로 하자는 요구는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에는 교과교육을 전공한 학자군을 배출하는 대학원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 제대로 된 종교교사양성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보다 원천적으로는 종교교육을 전공하여 교과교육을 담당할 후세대 학자군을 양성하는 제도도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보면 양자 모두 문제는 있다. 하지만 교직과

26) 고병철, 〈한국종교교육의 정황과 방향〉,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제21권, 2005, 116-119쪽.

목이 개설된 만큼 적어도 종교교육에 대한 올바른 교직원, 내지는 교교육관을 지닌 교수요원의 교육을 위한 노력은 학회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리라 본다. 만일 그렇지 않게 되면 종교교육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교정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한국종교교육학회에서는 금년에 각 대학의 종교교사 양성 프로그램에 필수과목인 “종교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재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현직 종교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서울대, 한신대의 1정연수)은 대체로 특정 종교의 신앙교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에 가깝고 교육부의 자격연수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종단에서 마련한 재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은 특정 신앙위주로 진행되고 있어²⁷⁾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런 배경에는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한 표준화된 재교육과정의 정립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에 따른 교재개발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III. 발전을 위한 전망

이미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종교교육의 본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종교교과서 개발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첫째, 종교교육에 대한 관점의 정립, 둘째, 종교교과서 개발에 대한 제 규정 이행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범종단 교과서개발위원회의 구성, 셋째, 학습자의 요구 등 제반 교육여건에 대한 고려, 넷째, 종교교사 양성과정을 통한 교과서 개발의 보다 원천적인 접근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과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제안을 제시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과서 개발과 관련된 발전적 제안을 해보기로 한다.

첫째, 종교교육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요구된다. 물론 현 교육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종교문화교육과 종단교육이 함께 공존하도록 구성된 교육과정 자체의 문제를 여기서 다룰 여유는 없지만 이런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교과서 개발에 지침도 부재한 상황이다. 그러나 주지하듯 정부가 제시한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를 개발하자면 적어도 종교교육이 교양교육의 차원에서 종교문화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그러나 종교교육이 이뤄지는 현장에서는 사학의 자주성을 전제로 종단적 차원의 종교교육을 고집하다 보면 자연이 교과서 개발에도 그런 갈등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과연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어떻게 정의하고 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비단 종교계만이 아니라, 학계, 학교현장, 학생, 학부모, 국가와 사회 등 우리의 학교 안팎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서 최적의 모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학교에서 종교교육이 정립되는데 우선해야 할 것은 역시 그것이 “교육”이라는 이름아래 정당한 목적을 전제로 온당한 절차과정을 수반하고서 진행되

27) 김철주·고병철, 〈종교교사양성 및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연구》, 21-2, 2004, 242-246쪽.

느냐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구나 한국의 다종교상황에 대한 고려, 건전한 종교관 확립, 나아가 종교교육이 종교계 사학만이 아니라 국공립학교에 이르기 까지 확대되길 기대한다면 종교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의 전환이 요구된다.²⁸⁾ 만일 종교계 사학에서 교세확장을 한 방안으로 종교교육을 실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세확장에도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이런 종교교육에 대한 접근방식은 학교와 종교단체를 혼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안으로도 적절한지 의문이다. 오히려 정체성은 종교교육이 본래 목적에 충실하게 이뤄질 때 도움이 될 것이고 진정한 의미의 사학 정체성은 구지 종단적 차원의 종교교육이 아니라 학교의 잠재적 교육과정(Latent Curriculum)을 통해 얼마든지 유지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교재개발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고려함과 동시에 공동교재 개발을 위한 범종단 교과서 개발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장차 교과서 자유발행제에 걸맞은 환경 조성을 제안해본다. 현행 종교 교과서 개발은 인정도서 관련 제 규정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그런 절차과정이 사실 유명무실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종교교과서가 학습자의 능력, 소개된 내용의 객관성, 외형적 체제, 내용구성의 계열 및 일관성, 학습여건, 인접교과를 비롯하여 비교과교육 활동에도 참고 될 수 있는 교과서로 개발되려면 범종단적인 교과서 개발위원회(가칭)를 두어 교재개발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과 종교일반 및 개발종단 관련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 등을 설정하여 공유될 때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와 같은 교사위주의 교과서보다는 학습자를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제 학교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실제 학교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교과서로 개발되어야 한다.

앞으로 교과서 개발 정책의 변화도 주목해야 한다. 향후 인정도서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도서와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을 추진하려고 한다. 최근에 이르러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자유발행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들어보면, 대체로 지식 정보의 다양한 흐름이 학교로 들어올 수 있도록 폐쇄적인 제도를 개방적인 방향으로 개혁함으로

28) 적어도 학교에서 종교교육은 비록 소극적인 접근이지만 종교교화(Religious indoctrination), 종파교육, 신앙교육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구지 B. S. Bloom의 교육목표 분류체계를 빌리지 않아도 “종교성” 함양은 종교에 관한 지식교육, 종교적 정서, 종교적 헌신 및 실천 행위 등을 내포한다고 본다. 다만, 교과교육으로서 종교교육은 주로 종교지식에 비중을 둘 가능성이 높으므로 여타 부분은 비교과 영역 또는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봄. 종교에서 교육을 지배하면 특정 종파교육에 머물 수밖에 없고 학교에서 종교교육이 교육에 의해 지배될 때 세속교육에 머물게 되어 이 양자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종교적 교육”을 제시하기도 함(김청봉, *종교교육학의 정체성 수립을 위한 시도*,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4집,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4). 그러나 이는 교육과 종교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분류로 비쳐진다. 오히려 학교에서 종교교육이 성숙의 영역 권에 따른 차이보다는 그것이 과연 모든 학생들에게 왜 필요하며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는 교육인가를 반추해보면 궁극적으로 종교교육은 “종교성”의 함양을 전제로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내용을 어디에 비중을 둘 것인가의 차이에 불과할 따름이다. 일본에서는 종교교육은 종파교육, 종교지식교육, 종교적 정조교육으로 대별함(江原武一, 《世界の公教育と宗教》 東京: 東信堂, 2003, PP.5-8/杉原誠四郎外, 《日本の宗教教育と宗教文化》, 東京: 文化書房博文社, 2003, PP.130-135.

써 학교교육의 획일화를 탈피할 수 있고, 창의성이 제고되어 질 높은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으려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원칙 제시 수준으로 축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우리 제도가 폐쇄적인가, 학교교육의 획일성이 교과서 제도 때문인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교과서 자유발행제가 기본적으로 그러한 방향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는 대체로 공감할 수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우리 교과서 제도는 장차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자유발행제를 도입하자면 먼저 그에 필요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우선, 학교 교육 및 교육내용의 수준 확보 문제이다. 즉 기초적 기본적 교육의 수준 및 질적 기회 균등 문제,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의 학교 급별 일관성, 체계성 유지 문제, 공교육의 객관적 질 관리 및 국민교육의 일정 수준 확보 문제, 부당한 압력, 교화, 선전 등 교육의 중립성 확보 문제, 표준적인 교육내용 선정(편견, 오류로부터의 보편타당성 확보) 및 교육목표 달성의 국가적 책임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의 해결에는 영 연방국이나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에서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교육과정 기준(National Curriculum)에 대한 국가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는 경향이 참조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국가 기준은 가능한 한 대강화하면서 그 기준은 최대한 지켜지고 실천 정도가 구체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교과서 출판사들의 지나친 상업주의로 교과서의 내용보다는 외형 체제에 치우칠 수 있는 점, 혹은 대형 출판사가 기존의 판매망을 이용하여 독과점할 우려 등이 경계되어야 하며, 교과서 채택 부조리나 특정 교과서를 편중 선택할 우려 등 급격한 제도 변경에 따르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에서 ‘인정도서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도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급속히 변화하는 컴퓨터 관련 과목이나 개별 교육이 가능한 체육·예술·국제에 관한 전문교과의 과목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과목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에서 필요한 도서를 심의 선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것으로, 실제로는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의 전 단계로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과목으로 78과목을 지정하였으며, 학교장은 이들 과목의 교과서에 대해서는 당해 과목의 교원자격을 가진 교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3월 전까지 관할 시도 교육감에게 신청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장은 이들 과목에 대해서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시 도교육청의 인정도서 심의를 거친 인정도서에 대하여 사용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규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시 도교육청의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 심의를 거친 도서의 사용 신청을 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우 교육감은 당연히 인정도서심의회 심의 없이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사용 신청된 도서의 내용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거나 특정 정당, 종교를 지지하는 등 교과서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셋째, 종교교사양성과정에서부터 공유할 수 있는 교과교육 관련 교재개발이 필요하다. 주지하듯 현행 종교교사양성 프로그램은 교사명칭만 통일되어 있지 각 종단중심의 교사양성을 유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교육과정도 이런 범주를 크게 벗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배경에는 종교교사 양성과정에서부터 종단교육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정 종교의 입장에서 종교교사 양성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종교교사 양성프로그램에서부터 균형 잡히고 객관적인 종교관을 기초로 한 프로그램의 정립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종교교사 양성의 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 영역과목의 표준화된 통일이 요구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종교교육학회에서는 금년에 “종교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²⁹⁾이라는 교사양성에 필요한 공통교재를 개발하고자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현행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하면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은 교직과목의 교과교육영역에 속하는 과목으로 “교과의 성격, 중등학교 교재분석, 수업안의 작성, 교수방법 등 교과지도의 실제 경험을 쌓게 한다. 고 되어 있다. 요컨대 교과교재의 연구와 교과지도를 주 내용으로 한다. 이에 반해 교과교육론은 “교과교육의 역사적 배경, 교과교육의 목표,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분석 등 교과교육 전반에 관하여 연구한다”고 되어 있어 전자에 비해 그 폭이 넓은 편이다.

위와 같은 교재개발의 목적은 동 교재를 개발함으로써 1) 중등교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교육기관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을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는 교사양성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현재 종교교사양성은 비사제의 종교관련 학과와 교육대학원의 종교교육 전공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동 교과목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지도 방법에 관한 참고서나 교재가 개발되어 있지 않다. 2) 중등학교 현장에서 직접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에게 종교교과의 교재연구와 지도방법에 대해 적절한 안내와 정보제공을 통한 종교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3) 종교교육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실제와 이론을 결합하는 통로역할을 추구하는데 목적을 둔다. 동 개발의 기대 효과로는 중등학교 종교교사 양성에 교재연구 및 교수-학습의 개발에 도움을 주며, 중등학교 종교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 학교에서 종교교육 및 종교교육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코자 한다.

IV. 맺는 말

이 글은 종교계 중등학교의 종교교과서 및 교사양성 프로그램을 위해 개발된 교재 특히 교과교육 영역 교과서에 개발과 관련된 과제와 전망에 주안 한다. 보다 접혀서 말하면 중등학교의 종교 교과서와 종교교사양성 프로그램에서 교과교육 관련 교과서 개발의 과제와 전

29) “종교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이라는 교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제1장 종교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의 성격/ 제2장 현행 교육과정과 종교교육/ 제3장 종교 교재분석과 교재연구/ 제4장 종교교육의 교수-학습 방법/ 제5장 종교교과의 교수-학습지도/ 제6장 종교 교사론.

망에 한정하여 그 과제와 전망을 설정해 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02년 이후 개발된 중등학교 종교교과서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교과서 개발의 계획, 발행의 절차, 인정도서로 출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몇 가지 해결을 기다리는 과제도 발견되었다. 이런 과제를 들면 다음과 같다. 종교교과서가 본래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되게 개발되는지, 현행 교육과정체제(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에 충실한지 등을 조명해보면, 현행 종교교과서는 본래 설정된 취지가 무엇인지 모호하다. 오히려 종교선교나 교화에 목적을 두고 개발되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할지 모른다. 물론 종전에 비해 교육과정 체제에 따르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이나 여전히 특정 종교의 관점에서 호교론 적이고 여타 종교에 대한 포용이나 균형 잡힌 관점보다는 배타성을 극복했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학습자의 관심이나 흥미를 고려한 흔적이 부분적으로 발견되지만, 교과서 개발이 학습자를 비롯하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정도서 절차과정을 거칠 필요도 발견된다. 이상의 과제를 근거로 몇 가지 발전적 전망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요구된다. 적어도 학교에서 종교교육은 한국의 다종교상황이나 교육여건, 등 학교 안밖의 제 조건을 고려하여 건전한 종교관, 종교성 함양을 목적하는 종교교육, 즉, 건전한 종교관의 확립, 종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는 쪽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적어도 학교에서 교과로서 종교교육은 종교신앙교육이나 종교교화, 종교선교와는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종교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교육에는 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행위적 영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학교에서 교과로써 종교교육을 접근하다 보면 다분히 종교문화교육에 주안할 따름이다. 이렇게 접근되는 종교교육이 반드시 사학의 정체성이나 설립이념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학생들과 구성원이 모두 선교나 신앙위주의 종교교육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종교교육은 특정 집단의 관점이나 성숙의 이분법적 구획을 떠나 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종교 교재개발을 위한 범종단 교과서 개발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들 통해 장차 교과서 개발의 자유발행제에 부합되고 종교간 상호 이해와 균형 잡힌 보다 객관적인 내용이 담겨짐으로써 명실상부한 종교교과서로 거듭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끝으로 종교교재 개발에 보다 근원적인 개선을 위한 한 방안으로 교사교육프로그램에 활용되는 기본교재인 종교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부터 균형 잡히고 객관적인 안목에서 개발되어야 함을 지적해본다.

참고문헌

- 강돈구 외, 종교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강신옥, 불교 중립학교의 불교 교과서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4.
 강희천, 《기독교교육의 비판적 성찰》, 대한기독교서회, 1999.

- 경상대 중등교육연구회, 《제7차 교육과정과 교과서》 교육과학사, 2001.
- 고병철, 〈한국종교교육의 현황과 방향〉,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제21권, 2005.
- 김철주·고병철, 〈종교교사양성 및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연구》, 21-2, 2004.
-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15 교양, 교육부, 1997.
- 김경희, 교단실립 중등교육기관의 종교교육과정 분석, 감리교 신학대학원 석사논문, 1998.
- 김귀성, 〈제7차교육과정과 종교교과서 개발〉, 한국종교학회, 《종교연구》 28집, 2002.
- 김종서, 한국종교교육의 역사와 현황, 한·일종교교육 심포지움(부산동서대학교) 발표논문, 2001.
- , 〈학교도덕교육에 영향을 주는 종교적 변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 14-6, 1992.
- 김철주·고병철, 〈종교교사 양성 및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연구》 21-2, 2004.
- 박도순 외, 교과서 검인정 제도 비교연구, 2002.11
- 성재식, 기독교 고교 종교교과서에 관한 연구, 고신대대학원 석사논문, 1991.
- 손원영, 〈제7차교육과정과 기독교학교의 종교교육〉,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제13권, 2001.
- 안미연, 중등학교에서 종교교육 실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
- 유근필, 한국기독교계 중등학교 종교교과서 분석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5.
- 이기성, 종교교육과정에 관한 비판적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3.
- 이종식, 기독교 고등학교 종교교과서에 관한 연구, 고신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1.
- 이종우, 종교교과서에 나타난 도덕교육의 내용에 관한 연구, 교원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7.
- 이종진, 고등학교 종교(기독교) 교과서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9.
- 정진홍, 〈제7차 교육과정과 종교교육〉,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제13권, 2001.
- 조영관, 한국 가톨릭계 중등학교 종교교육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8.
- 홍후조, 〈더 나은 교과서 확보를 위한 방안 10가지〉, 《교과서연구》, 제39집, 2002.
- 江原武一, 《世界の公教育と宗教》 東京: 東信堂, 2003.
- 杉原誠四郎外, 《日本の宗教教育と宗教文化》 東京: 文化書房博文社, 2003.
- Erricker. C, Erricker. J, *Reconstructing Religions, Spiritual and Moral Education*, NY: 2000, Routledge Falmer.
- Peters. R. S, *The concept of education*, R. K. P, 1967.
- Flew. A, "Indoctrination and religion", *Concepts of Indoctrination*, R. K. P, 1972.
- Winch Christopher and Gingell. J, *Key concepts in the philosophy of education*, R. K. P, 1999.

원고접수: 2006년 5월 19일 1차심사: 5월 20일 게재승인일: 6월 20일

① 전공: 교육철학 및 교육사

② 소속: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③ 관심영역: 교육철학, 종교교육, 한국의 교육문화교류사.

④ 주요논문: <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의 개념모형 탐색>, <불교 및 도교적 관점의 인성교육>, <고구려의 대외문화 교류와 학교교육>

⑤ E-mail: gskim@wonkwang.ac.kr

Abstract

Task and Prospect of Teaching materials on Religion

Kim, Gui Sung

Wonkw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task and prospect of textbook developed for religious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s and teacher training program in university. More concretely, task and prospect of textbook on Religion. I easily acknowledged that textbook on Religion developed for secondary education after 2002 more focused on religious evangelical missionary work or indoctrination than intrinsic religious education as cultural subject in secondary schools. Of course compared than before, revised textbooks after 2002 developed according to 7th national Curriculum in secondary schools, but still remain a perspective which is a specific religious defence attitude and rather balanced inclusiveness than exclusiveness. However there are some consideration on students interest, in the process of text book development, it should be reconsidered the process of authorization on textbook Religion organized parent and community members, expert etc. Based on above some tasks, I' like to present some prospect for future development of textbook development as follows.

First, it shoed be changed the viewpoint of religious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s. Second,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committee as a pan-religious order for the development of textbook, it should be cope with free publication system in future, and it could be rebirth a new textbook worthy of name contained better understanding between religions, more balanced contents. Finally could be recommend the basic textbook related in teacher education program in order to prepare for the better textbook development in future, take an example "Subject matter on Religion, Teaching & Learning method in Religion" etc.

Key words : Religions education, Teaching materials, Subject matter of Religion, Textbook on Religion, Curriculum on Religion